

상반기 내수 모바일 단말 시장

휴대폰 750만대 규모 … DMB 150만대 수준

올 상반기 내수 모바일 단말 시장은 보조금 지급 및 월드컵 등 사상 유례없을 만큼 '특수'를 맞았고 그만큼 기대가 컸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은 월드컵 수혜를 거의 받지 못했다. 물론 작년보다 다소 판매량 상승을 이어갔지만 '특수'라고 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DMB의 경우,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가입자 증가를 이루었다. 휴대폰 및 DMB 단말을 중심으로 상반기 내수 모바일 시장을 결산했다.

글 | 김종을 기자(people@cellular.co.kr)

휴대폰 시장

업계에 따르면, 6월말 현재 내수 휴대폰 시장 규모는 750만대 수준이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1500만대 정도이다.

상반기 750만대 및 연간 1500만대 내수 휴대폰 시장이 결코 적은 물량은 아니다. 작년 연간 1400만대 수량에 비하면 오히려 감지덕지 해야 할 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실적에 실망을 숨기지 못하는 건 단말보조금 및 월드컵이란 쌍끌이를 동반할 경우 최소 1600만대 최대 1700만대 연간 휴대폰 규모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

올 초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내수 휴대폰 시장이 최대 1700만대, 최소 1600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 같은 실적 부진은 단말 보조금이 시장을 거의 견인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조금이 첫 지급된 지난 3월 130만대 수요를 이끌어 시작은 좋았지만 4월은 110만대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5월 역시 월드컵 기대심리가 작용했지만 115만대 판매에, 6월은 2분기 마지막 달임에도 불구하고 125만대 판매로 전달에 비해 10만대 상승한 수준이었다.

한편, 이와 관련 가트너측은 "허수를 제외한다면 이동전화 사용자 3000만명 수준으로 예상되는 국

내 시장에서 휴대폰 판매량이 연간 1400만대이면 극히 정상적이고, 일부 특수 요인이 가미된다면 1500만대 수준"이라며 "그 이상 형성된 시장은 서비스 및 단말 제조업체의 과열 마케팅이 불러온 비정상적인 시장"이라 평가했다.

1월 휴대폰 시장은 137만~144만대를 기록해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삼성전자는 1월 전체 시장 규모를 144만대로 집계했으며 이중 자사가 69만대를 기록해 47.9%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했다.

팬택 계열은 지난 1월 스카이 15만대, 큐리텔 20만대 등 총 35만대를 판매해 전체 140만대 중 2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팬택 계열은 "지난해 출시됐던 스카이 IM8300, IM8500을 비롯해 큐리텔 PT-K1500, PT-S170 등의 제품이 반응이 좋았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지난 1월 내수 시장 규모를 총 137만대로 집계했으며 이중 자사가 27만대를 공급해 19.7%의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월 내수 휴대폰 시장이 130만대에 머물러 1월 140만대에 비해 10만대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휴대폰 공급 규모는 삼성전자가 120만대로 최소 수량을 예측했으며, LG전자가 133만대로 최대 수량을 예측하는 등 업체들마다 집계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1월 140만대 규모였던 것을 감안하면 다소 성장세가 주춤한 상황이다.

2월 내수 규모를 120만대로 잡은 삼성전자는 그 중 자사가 60만대를 공급해 점유율 5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총 시장 133만대 중 자사가 32만대를 공급해 점유율 24%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팬택계열은 총 125만대 시장 규모 중 자사가 20만 6천대(스카이 5만 6000대, 큐리텔 15만대)를 공급해 점유율 16.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3월 내수 휴대폰 시장은 130만대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휴대폰 내수 시장 규모를 130만대로 분석했다. 이중 자사 물량이 64만대를 차지한 것으로 밝혔다.

물량을 138만대로 집계한 LG전자는 28만7000대를 공급했다. 팬택계열은 LG전자와 마찬가지로 내수시장 규모를 138만대로 집계했으며, 이 중 스카이가 13만8000대, 큐리텔이 13만4000대를 공급, 총 27만2000대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4월 휴대폰 시장은 105만~110만대를 형성했다. 삼성전자는 전체시장을 109만대로 보고 이 가운데 57만대를 공급해 점유율을 52%로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LG전자는 22만대 가량을 공급했다. 팬택계열은 자체 집계한 105만대 중 17만8000대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5월 내수 휴대폰 시장은 113만~115만대 수준이었다. 삼성전자는 5월 휴대폰 시장을 113만대 수준으로 집계했으며, 이 중 63만대를 판매해 시장 점유율 53%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했다. LG전자는 5월 국내 시장 규모를 114만대 수준이며 이 중 24만대를 공급해 점유율 20.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팬택계열은 내수시장이 113만~115만대 수준이며 이 가운데 자사가 18만대를 공급해 1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팬택계열의 휴대폰 판매대수 가운데 스카이는 8만대, 큐리텔은 10만대를 공급했다.

6월 휴대폰 시장은 125만대 수준이었다. 삼성전자는 126만로, 팬택계열은 125만대로 추산했다. LG전자는 팬택보다 좀 많은 130만대로 집계했다.

DMB 단말 시장

상반기 DMB 시장은 기대만큼 활황도, 그렇다고 우려만큼 침체도 아니었다.

국내 이동 3사 자료에 따르면, 6월 현재 위성 DMB용 휴대폰 판매는 약 57만 5000만대, 이 중 SK텔레콤이 51만대, KTF와 LG텔레콤이 각각 3

만 5000대와 3만대를 판매했다.

또 지상파DMB의 경우, KTF 17만 8000대, LG텔레콤 3만 5000대를 판매한 반면, SK텔레콤은 2000대 판매에 그쳤다.

SK텔레콤은 위성DMB 단말기 18종을 출시한 반면, 지상파DMB용은 단 1종 출시에 그쳤다. KTF는 지상파와 위성용을 각각 6종씩 출시했으며, LG텔레콤은 4종씩 선보였다.

위성DMB 서비스 개시가 약 6개월 빨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서비스간 승부는 지상파가 약간 우세한 형국이다.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상파DMB 단말기 판매대수는 100만대에 육박하고 있는 반면, 위성DMB는 62만대에 그치고 있기 때문.

더욱이 최근 지상파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됐던 수도권 전지역 지하철 개통도 이뤄짐에 따라 지상파 진영의 판매 증가세가 본격화될 것이란 기대다.

한편, 지난달 18일, 지상파 DMB 특별위원회(이하 DMB특위)는 지상파 DMB 단말기 보급대수가 지난 15일을 기준, 10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지상파 DMB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1일 본 방송을 시작, 5월말 정보통신부 집계 결과 총 86만 2878대가 판매됐었다.

6월에 들어서는 월드컵 특수와 지하철 중계망 서비스 개시 등에 힘입어 판매 추이가 급증세를 타면서, 본 방송 개시 7개월 15일 만에 100만대를 돌파하게 됐다.

DMB특위가 밝힌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휴대폰용 단말기의 경우 KTF가 19만 7103대, LG텔레콤이 11만 5089대, SK텔레콤 1만1900대로 총 32만 4092대가 판매됐다.

DMB+내비게이션과 3인치 이하 화면크기의 전용단말기 판매도 급증, 하루에 4500대 꼴로 판매되면서 총 68만 1816대가 보급됐다.☑